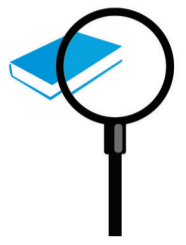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챗GPT에 지식 생태계 급변해도... 결국 인문학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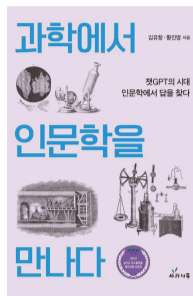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

김유항·황진영 지음

10월은 노벨상의 계절이다. 전 세계는 노벨상 발표를 앞두고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올해도 지난 2일 생리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노벨상은 세계적 권위의 상이며, 무엇보다 수상자들에게는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챗GPT의 등장으로 지식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 기계가 지식을 생산하면서 이제 인간에게 남은 영역은 창조적인 능력이다. 이 말은 결국 인간에 집중해야 하며 인간이 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맞물려 인문학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는데 챗GPT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로 다가온다.

한림원 종신회원인 김유항 박사와 인하대 황진



명 명예교수가 펴낸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는 과학자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자들의 생애를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부부인 저자들은 20대 미국 유학시절부터 함께 공부한 뒤 귀국 후 인하대 교수로 재직했다. 학문적 동지이자 절친이며 부부 과학자이다. 이들은 퇴직 이후에도 과학지식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과학의 대중화에 애쓰고 있다.

저자들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과학 지식과 아울러 과학자들의 삶과 내면, 사상까지 들여다봄으로써 인간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학사에 화려하게 기록되거나 반대로 과학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역사 속에 파묻힌 무명의 과학자들의 생애까지 살피고자 했다. 그리고 과학 지식을 큐레이션하여 인문학과 통섭을 하려는 것이다."

책에는 천재 과학자의 독특한 생애가 소개돼 있다. 약국의 견습생에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된 앙리 무아상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는 20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에 도전해 불화수소(HF)에서 불소(F₂)를 분리해 불소 화학의 장을 열었다.

앙리 무아상은 화학 외에는 다른 공부는 못해 대학 입학 자격인 바칼로레아에 합격하지 못했다.

당시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파리 인근으로 피난을 떠났다. 다행히 그곳에서 바칼로레아 합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2학 약학 학위 학생으로 등록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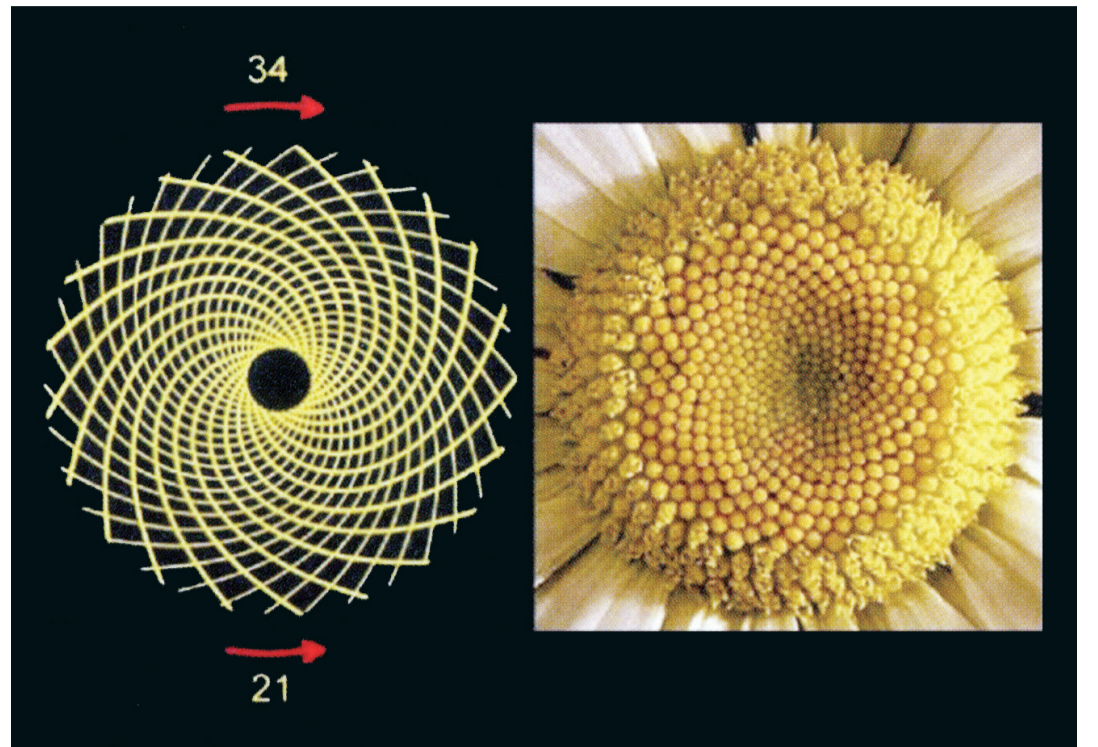
그는 수년 간을 좋아하는 약학과 실험화학에 전념했다. 또한 독학으로 바칼로레아에 합격해 파리 약학대학에 입학한다. 이후 약국의 부유한 약사 딸과 결혼해 장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목표인 불소 분리 문제에 집중한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꼽으라면 피보나치를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에 십진법을 도입했으며 황금비율과 황금분할, 황금나선 등을 일반화시켰다.

그는 북아프리카 부지 향의 세관원이던 아버지 직업 때문에 어렵게 이슬람 학교에서 아라비아 수학을 배웠다. 이집트를 비롯해 시리아, 그리스 등을 여행하며 인도-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산반서'를 통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한다. 그는 무게는 물론 측정, 이자, 화폐 환전 등 아라비아 숫자를 응용해 새로운 숫자 체계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구의 무게를 잰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1731-1810)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과학 실험에 심취했다.

그는 친구 미첼이 발명한 정밀한 비틀림저울을 사용해 지구의 밀도와 질량을 계산했다. 비틀림저울 진동 주기를 토대로 큰 공과 작은 공 사이의 인



중세 유럽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황금나선 등을 발견했다. 사진은 두 종류의 나선이 있는 해바라기 씨 배열.

력을 측정하고 이 값을 매개로 밀도와 질량을 계산한 것이다.

이밖에 책에서는 진화론의 선구자 뷔퐁 백작과 숙적 칼 폰 린네를 비롯해 근대화학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일컫는 앙투안 라부아지에와 마리 안 라부아지에의 삶과 업적도 만날 수 있다.

저자들은 "과학자들의 고뇌와 열정, 윤리의식,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스스로 찾는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일 것"이라고 말한다.

<사과나무·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 봐도 비디오

박희준 지음

"연체로는 나를 움직이는 연료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짧게 말한다. 대체로 첫 시집을 발간하는 시인은 왜 시를 쓰는지 등을 독자를 위해 자세하게 쓴다. 그러나 시인은 압축적인 한 줄로 시인의 말을 압축한다.

박희준 시인의 첫 시집 '안 봐도 비디오'는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작품으로 형상화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간의 복잡한 감정을 길게 서술하는 게 아닌 몇 개의 단어와 몇 개의 현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의 매력을 느꼈다"며 "수학과 과학처럼 원인과 가정,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해내지 않아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몇 개의 단어가 만들어내는 식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용한 몸통을 관통하는 어떤 것// 무대에 오르지 못한 대사를/ 읊조리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자취를 감춘 양말이/ 복도를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창문을 닫을 것/ 끝나지 않은 것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첫머리에 실린 '에필로그'라는 시는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작품이다. 제일 끝머리에 실리는 글이 에필로그인데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다분히 시적인 발상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존재에 대한 사유의 근거가 드러내져 있다 볼 수 있다.

시인인 박성현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대해 "시인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 대한 55편의 기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강철이 단련되듯, 끊임없이 단련되는 존재임을 이번 시집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시인은 한남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2023년 '시와정신'으로 등단했다.

안 봐도 비디오



<달아실·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와인이 별건가?

오세호 지음

"와인 잘 몰라요. 공부해야 할까요?" 와인 이야기가 나오면 무지함에 주눅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도 어려울뿐더러 지켜야 할 매너는 왜 또 그리 많은지. 와인은 어려운 술이라는 생각에 마시는 것부터 꺼려진다. 이들을 위한 친절하고 와인 입문서가 나왔다.

'이탈리아를 입고 먹고 마시는 남자' 오세호가 쓴 '와인이 별건가?'는 와인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하고 가이드다. 10년간 밀라노에서 패션 디자인, 마케팅을 전공하고 돌아와 패션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저자는 유학 시절부터 키우던 식음 문화에 대한 꿈을 억누를 수 없어 다시 토리노에서 요리, 와인, 커피를 공부한 우리나라 바리스타 1세대, 소믈리에 1세대다.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와인 바 '뱅가'를 오픈하고 운영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한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 거장들에게 사사한 와인을 즐기게 된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저자는 와인을 즐겨야 할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소믈리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한다. 어설픈데 글로 공부한 뒤 와인을 마시는 모습만큼 어색하게 없다며 머리 아픈 와인 이름 외우기, 지역, 품종, 맛 표현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즐기면 해보라고 권한다.

와인을 따를 때 와인 서버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로 자신의 잔에 먼저 따라 와인 상태를 확인시켜 준 다음 다른 사람의 잔에 따른다거나,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냉장고에 두고 마시는 레드 와인은 향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실온에 보관하기 등 기본적인 와인 매너와 상식에 담았다.



<책담·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김진명 지음

푸틴과 젤렌스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제 분쟁사의 방점은 분명 '우러전쟁'에 찍혀 있다. 경제·사회·역사·문화 등 인류사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구가하고 있는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결과도 알 수 없다. 다만 불분명한 미래에 맞서는 인류의 '소설적 특권'은 감춰진 앞날을 상상력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이슈나 역사적 사건에 천착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온 김진명이 최근 소설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을 펴냈다. 책은 계속되고 있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오가면서 우러전쟁의 끝과 푸틴을 처단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낸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 끝나도 저 푸틴이 있는 한 언젠가는 같은 일이 반복될 테고.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놈을 죽여야 하지만 아무도 푸틴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쪽 도시 부차에서 청년 미하일은 갑자기 들이닥친 러시아군을 맞닥뜨린다. 칼에 찔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아내와 딸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황.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미하일은 바흐무트 공방전에서 행방을 드러낸다. 목숨을 걸고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면서 복수를 하지만, 죽음은 커녕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다.

저자는 푸틴을 인류의 폭력 혹은 인류사의 광기로 상징하고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푸틴의 겁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책을 썼다는 작가는, 이번 전쟁의 참상이 남북 관계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흥미로운 '푸틴 처단 오퍼레이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타북스·1만88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공연 프로그램

10.13.(금) 개막축하공연(백재정, 비비지)
10.14.(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10.21.(토) 레전드 가요대전(조성모, 민해경, 김범용)

주요 어린이 프로그램

챌린지 에어바운스
종이미로 탈출 어드벤처
황금빛 갈대열차
갈대숲 생태탐험대

주요 부대행사

음악이 흐르는 갈대로드
갈대숲 미디어 파사드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강진만 가을축제

제8회 강진만 추추는 갈대 축제

The 8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3. 10. 13.(금) ~ 10. 22.(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주관 강진군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